

〈辛亥生甲會之圖〉 연구

- 연구검토 및 下段의 座目·序文·7言 律詩 2首를 중심으로 -

오승환*

- I. 머리말
- II. 선행연구검토
- III. 〈辛亥生甲會之圖〉의 구성과 계획장소
- IV. 계획도의 구도와 화풍
- V. 〈辛亥生甲會之圖〉의 座目·序文·7言 律詩 2首 연구
- VI. 맺음말

I. 머리말

〈辛亥生甲會之圖〉는 임진왜란 때 경상우도 草溪에서 의병장으로 활동하여 공을 세우기도 하였고 昏朝(光海朝)에 癸丑獄事 등 혼란한 정국이 이어지자 남명학과 中北으로서 정치적 지조를 지켰던 강직한 선비 雪壑 李大期(1551~1628)가 주동이 되어 鄭仁濬(1551~1625), 洪純愨(1551~?)과 맺었던 甲契를 기념하기 위하여 제작한 同庚契軸圖(軸形式의 同庚契會圖)이다.¹ 〈신

* 성균관대학교

¹ 이대기의 의병장 활동에 대해서는 金德珍의 「雪壑 李大期和 濯溪 全致遠의 義兵活動」을, (金德珍, 「雪壑 李大期和 濯溪 全致遠의 義兵活動」, 『남명학연구』 2(1992), pp. 123-139) 남명학과 중북으로서의 활동은 설석규의 「남명 문도를 찾아서 : 남명학파의 정치적 지조를 지킨 선비 - 설학(雪壑) 이대기(李大期) -」를, (설석규, 「남명문도를 찾아서 : 남명학파의 정치적 지조를 지킨 선비 - 설학(雪壑) 이대기(李大期) -」, 『선비문화』 13(2008), pp. 97-117) 학자로서 강직하고 학덕이 있었으며 義에 입각한 실천적 성향에 대해서는 김승혜의 「설학 이대기 연구」를 참고.(김승혜, 「설학 이대기 연구」, 경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해생갑회지도)가 제작된 시기는 1622년으로 당시 이대기는 영창대군이 죽임을 당하자 곧바로 관직에서 물러나 草溪에 은거하고 있었는데 난정을 간언한 桐溪 鄭蘊과 정운을 옹호한 嶧陽 文景虎를 구호하다가 이 일이 빌미가 되어 白翎島에 유배되어 있었다.² 이대기가 백령도에 있던 1622년 계획참석자 중 한명이자 故舊인 정인준이 그의 아들 鄭濯을 통해 한양에서 契軸圖 3부를 제작하여 백령도에 있던 이대기와 청주에 있던 홍순각에게 보냈다. 지면이 빈 계축도를 받아본 이대기는 감흥에 젖어 座目·序文·7言律詩 2首를 지어 다시 정탁을 통해 정인준과 홍순각에게 보냈는데, 이 글이 지면이 빈 계축도에 기입되어 <신해생갑회지도>가 완성되었다.

필자는 갑계의 결성을 주도하고 <신해생갑회지도>의 下段 좌목 부분을 지었으며 계획의 전말과도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계획참석자 이대기와 그의 저술을 연구하고 있고,³ 그가 유배지에 있던 시기에 제작된 <신해생갑회지도>가 보물로 지정되어 있음을 알게 되어 연구에 착수하였다. 본고에서 선행연구를 모두 검토해본 결과 연구의 미흡과 오류가 공통적으로 <신해생갑회지도>의 하단에 기재된 좌목 부분과 직간접적 관련이 있음이 드러났다. 좌목 부분은 계획참석자의 인물정보, 갑계의 결성배경 및 전말, 계축도의 제작자 및 제작 시기, 계축도의 제작 과정, <신해생갑회지도>의 제작 시기 등등 기초적이면서도 매우 다양한 정보가 담겨있어 <신해생갑회지도> 연구의 초석에 해당하는 1차 사료이지만 여태껏 원문 제시가 명확하지 않았고 분석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고에서는 이대기의 『雪壑集』과 정인준의 『龜潭實記』를 <신해생갑회지도>와 비교/대조하여(校勘) 확정된 원문을 가지고 상세한 분석을 하는데 역점을 두었고,⁴ 한편 기존의 연구 성과를 토대로 <신해생갑회지도>의 구성, 희소성, 계획장소, 계획도의 유형, 계획도의 구도와 화풍 등에 대해 심층적인 논의를 진행하였다.

<신해생갑회지도>는 17세기 초 작품으로 同甲契에 관한 회화작품으로서 당시까지 알려진 유일한 예라는 의의 및 가치를 인정받아 1990년 보물 제1045호로 지정되었는데,⁵ 현재도 이러한 희소한 가치가 여전한 것으로 본 연구에서 드러났다. 그리고 조선시대 동경계축도에서는 확인되지 않는 上·中·下 3단에 하단이 좌목·서문·시 순으로 기재되어있는 독특한 구성은 희소한 가치와 아울러 <신해생갑회지도>의 보물로서의 가치는 물론이고 계획도로서의 독특한 위상을 방증

2 설석규, 의의 논문, pp.109-110; 공광성, 『嶧陽 文景虎 研究』, 경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p.17.

3 필자는 2014년부터 이대기와 그가 저술한 國朝歷年士禍錄 『雪壑謏聞』을 박사학위논문으로 연구하기 시작하여 “雪壑 李大期の 『雪壑謏聞』 研究와 譯註”라는 주제로 2016년 6월 24일 연구발표회를 통해 예심을 거쳤고 현재 본심을 앞두고 있다.

4 『雪壑集』은 이대기의 문집으로 성균관대학교 존경각 소장본(再刊本으로 간행년도는 미상)을, 『龜潭實記』는 정인준의 실기로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간행년도는 1907년)을 참고하였다.

5 文化部 文化財管理局, 『動産文化財指定報告書(90指定篇)』(信友美術株式會社, 1991), pp.224-226.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밝혀낸 다양한 사실정보는 계획도 연구뿐만 아니라 그만큼 미흡했던 문화재 정보의 경신에 기여되며, 17세기 초 지방 사족이 맺었던 同甲契의 계획 풍속과 양상은 풍속사적 의의가 있다. 이와 같은 측면은 <신해생갑회지도>의 미술사적 의의와도 긴밀하게 상통하며, 계획도만을 놓고 볼 때 17세기 초 산수를 배경으로 실경을 묘사한(實景山水) 동경계축도로서 16세기 초에 유행하였던 安陜派 산수화의 구도와 화풍의 계승(혹은 영향)이 확인되는 매우 드문 작품이라는 측면에서 그 의의를 뚜렷이 찾을 수 있다.

II. 선행연구검토

<신해생갑회지도>는 1987년 李源福에 의해 『美術資料』 39에 처음 소개되었다.⁶ 분량은 사진 자료 2쪽을 포함 모두 5쪽으로 짧은 분량이다. <신해생갑회지도>의 구성과 계획 참석자에 대한 인물 정보, 갑계의 전말이 소략하게 기술되어 있는데, 전말과 관련한 기술에서 약간의 오류가 있다.⁷ 계획도의 구도와 화풍을 간략히 기술하였고 7언 읍시 2수를 제외한 좌목과 서문의 원문이 실려 있는데, 여기에서도 缺落, 한자 오류, 구두 오류 등이 산견된다.⁸ 이로 볼 때 <신해생갑회지도>에 기재되어 있는 원문 파악이 미흡하였고 결과적으로 갑계의 전말과 관련한 내용 기술에 있어서 오류가 발생하게 되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처음으로 <신해생갑회지도>를 발굴하여 소개하였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6 李源福, 「辛亥生甲會之圖」, 『美術資料』 39(1987), pp. 1-6.

7 『美術資料』 39 「辛亥生甲會之圖」에 “洪純慤이 郡守職이 끝나 옮겨가게 되었고 李大期도 他處로 가게 되어 모임이 더 이상 이어질 수 없었다.”고 되어 있으나, (李源福, 앞의 논문, p. 2) <辛亥生甲會之圖>에 기재된 서문에는 “무오년(1618, 광해군 10)에 이와 같이 하였고, 기미년(1619)에도 이와 같이 하여 장차 근초의 재직기간으로 기한을 삼았더니, 내가 경신년(1620) 2월에 임금의 명을(玦) 받고 서쪽으로 유배 가서 모춘의 기약(계획)을 20일 격해두고, 비바람에 홀연 기약이 흩어졌다. [戊午如是 己未亦如是 將以謹初之換魚爲期 余於庚申二月受玦西遷 暮春之期 只隔二旬而風雨忽散]”라고 하여 이대기가 백령도로 유배되어 계획이 지속되지 못하였음을 밝히고 있으며, 임기가 끝나 옮겨가게 되었다는 홍순각의 기록은 없다. 이는 서문을 그릇 해독한 것으로 보인다.

8 『美術資料』 39 「辛亥生甲會之圖」에 실린 좌목에서 정인준의 좌목만을 보면 “成均進士鄭仁濬字德淵三月十三日生 本瑞山 居隣川 龜漂”로 되어 있는데, (李源福, 앞의 논문, p. 5) 이는 “成均進士鄭仁濬字德淵 三月十三日生 本瑞山 居陝川 龜潭”을 잘못 해독한 것이다. 즉, “淵”은 “淵”이, “隣”은 “陝”이, “漂”은 “潭”이 되어야 하고, 구두도 “淵”과 “三” 사이가 띄어져야 한다. 이는 계획참석자 정인준의 실기 『귀담실기』 권2에 좌목이 기재된 「甲會圖誌」와의 비교/대조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또 홍순각의 좌목 중 “居西原 栢堂”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居西原 雙栢堂”의 잘못된 “雙”이 결락되어 있다. 이처럼 좌목에만 이미 수개의 한자와 구두의 오류, 결락이 발견되며 나머지는 번다하므로 일일이 들지 않는다.

이후 <신해생갑회지도>는 1990년 보물 제1045호로 지정되는데 그 보고서인 『動産文化財指定報告書(90指定篇)』에 지정번호, 지정일, 이 작품의 소재지, 소유자, 규격, 재질, 형식 등이 기재되어 있고 계획도의 상태가 꼼꼼하게 기재되어있으며, 구도를 上中下 三段으로 나누어 기술하였다.⁹ 기술의 끝에 “安輝濬”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보고서는 “安輝濬”이 정리한 것으로 추정된다.¹⁰ 중단 계획 장면을 그린 계획도 파악에 오류가 있으나 이는 실제 계획장소가 밝혀지지 않음으로 인한 것이다.¹¹ 사진 자료 2쪽을 포함 모두 4쪽 분량으로 유일하게 좌목·서문·7언 율시 2수의 원문이 모두 실려 있는데, 『美術資料』39에 실린 원문과 마찬가지로 결락, 한자·구두 오류 등이 산견된다.¹² 이 보고서를 통해서 17세기 초 작품으로서 同甲契에 관한 당시까지 알려진 유일한 회화작품이라는 의의가 인정되어 보물로 지정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¹³

李源福의 『辛亥生甲會之圖』와 『動産文化財指定報告書(90指定篇)』 이후 현재까지 <신해생갑회지도>를 전적으로 연구한 연구자는 없었고 조선시대 계획도 연구의 석사논문 2편과 박사논문 1편에 간략히 소개되는 선에서 그쳤다.¹⁴ 그러나 자료 인용을 넘어서 새롭게 규정하거나 전개한 부분이 있기도 하지만 좌목 부분의 원문 해독의 문제로 인하여 오류가 발견된다.¹⁵ 그런데 그

9 文化部 文化財管理局, 앞의 책, pp. 224-227.

10 따라서 본고에서는 『動産文化財指定報告書(90指定篇)』에 실린 기록을 안휘준의 기술로 보고 논술하였다.

11 『動産文化財指定報告書(90指定篇)』에 “近景에는 길을 나타내려는 듯 두 줄의 평행한 선을 산 허리에 끼워 넣은 것이 이채롭다.”고 되어 있으나, (文化部 文化財管理局, 앞의 책, p. 225) 이는 실제의 계획장소를 알지 못한 데에서 잘못 파악한 것이다. 실제 계획장소는 정인준이 만년에 거처하던 합천 울진리 龜湖 가에 축조한 정사 松亭으로 울진리 아래에는 黃江이 흐르고 있는데 이 황강 물줄기를 길로 잘못 파악한 것이다. 기술을 보면 필자도 이 부분에 대해 의혹을 가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의 계획장소에 대해서는 아래 장에서 상세히 다루었음.

12 『動産文化財指定報告書(90指定篇)』에 실려 있는 서문의 일부만을 살펴보면 “德業風流 離未擬於耆英 眞率其放而自適 優游涵詠 樂而忘形者可以自今而作古也”로 되어 있는데, (文化部 文化財管理局, 앞의 책, p. 225) 여기에서 “離”는 “雖”가 되어야하고, 구두는 “德業風流 雖未擬於耆英 眞率 其放而自適 優游涵詠 樂而忘形者 可以自今而作古也”가 되어야 한다. 모두 한자 오류 1개와 구두 오류 4개가 발견된다. 또 “余於庚申二月 遷暮春之期”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余於庚申二月 受玦西遷 暮春之期”의 잘못으로 “受玦西”가 결락되었고 구두도 오류가 있다. 이상은 『雪壑集』卷2 『甲會圖誌』와 『龜潭實記』卷2 『甲會圖誌』의 원문과 비교/대조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나머지는 번다하므로 일일이 들지 않는다.

13 文化部 文化財管理局, 앞의 책, p. 226.

14 시기 순으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하영아, 『朝鮮時代의 契會圖 研究 : 16, 17세기 作品을 中心으로』,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2; 김보미, 『朝鮮時代 契會圖 研究 : 16世紀 作品을 中心으로』, 홍익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윤진영, 『朝鮮時代 契會圖 研究』,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4.

15 하영아는 기존의 자료를 간략히 인용하였고, (하영아, 앞의 논문, pp. 37-38) 김보미와 윤진영의 경우 새롭게 기술한 내용에 오류가 있다. 갑계의 결성배경 및 전말과 관련한 부분부터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윤진영의 논문에 “進士인 鄭仁濬은 洪純愨과 幼年時節부터 함께 성장한 知友關係였다.”고 되어있으나, (윤진영, 앞의 논문, p. 203) <신해생갑회지도>의 서문에는 “나는(이대기) 덕연(정인준)과 가까운 곳에 거주하고 뜻도 맞아서 어릴 적부터 백발에 이

오류의 근원을 들여다보면 앞의 두 자료와 마찬가지로 모두 <신해생갑회지도> 하단의 좌목 부분과 맥이 닿아있음이 확인된다. 갑계의 결성배경 및 전말과 관련한 부분은 서문에 그 내용이 실려 있고 계획도의 유형과 관련한 부분은 7언 율시 2수에 그 단서가 기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모두 좌목 부분의 원문파악과 해석(해독)의 문제로 인해 파생하였던 것이다.

총체적으로 봤을 때 李源福의 『辛亥生甲會之圖』와 『動產文化財指定報告書(90指定篇)』에 실려 있는 좌목 부분의 원문에 결락과 한자·구두 오류가 있는 데에는 몇 가지 원인이 있다. 첫째, 하단의 좌목 부분이 기재된 표면이 오랜 세월을 거치며 손상된 부분이 있어서 작품 자체적으로는 완전한 한자 해독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¹⁶ 둘째, 좌목·서문·7언 율시 2수가 이대기의 『설학집』과 정인준의 『귀담실기』에 각각 기재되어 있어 비교/대조를 통해야지만 정확한 원문 확정과 복원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셋째, 한자의 경우 유사한 자체의 한자로 잘못 판독하였고 구두의 경우 문맥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 2자료 이후의 논문에서 발견되는 오류도 제대로 된 원문의 미확정과 직간접적 연관성이 있으며 이는 또한 한문의 해독 능력과도 관련된다.

<신해생갑회지도> 하단에 기재되어 있는 좌목 부분에는 계획 참석자의 인물정보, 갑계의 결성배경, 진행과정 및 전말, 계획의 성격, 계축도의 제작자, 계축도의 제작 시기, 계축도의 제작 과정, <신해생갑회지도>의 제작 시기, 계획도 유형 등등 명백한 정보를 다양하게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계획을 갖던 당시의 역사적/시대적 상황과 그에 따른 계획참석자의 행적, 그 행적이 갑계의 전말과 연계되는 점, 17세기 초 지방 사족의 갑계 풍속(行箭, 契約 등) 등을 알 수 있어 사료로서의 가치가 높다. 이런 만큼 좌목 부분은 <신해생갑회지도> 연구의 토대이자 초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에 원문 파악의 미흡과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처음으로 <신해생갑회지도>를 전적으로 연구하는 본 연구에서는 『설학집』과 『귀담실기』를 <신해생갑회지도>와

르렸고(余與德淵居近志同 自髫年至于白首)"라고 하여 이대기와 정인준이 어려서부터 함께 성장한 친구임을 밝혔고 정인준과 홍순각의 관계에 관한 기록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또 "세 번째 모임을 갖기로 약속 날을 20여 일 앞두고 公的인 혹은 私的인 일로 모두 연고지를 떠나게 되어 모임은 더 이상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기술되어 있으나.(윤진영, 앞의 논문, p. 203) 서문에는 이대기가 백령도로 유배 감으로 인해 모임이 지속되지 못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다음으로 계획도의 유형 및 화풍과 관련한 부분은 아래와 같다. 김보미는 계획도의 유형을 屋外契畵에서 地圖式에 속하는 작품으로 파악하였고,(김보미, 앞의 논문, pp. 22-35) 윤진영은 山水를 背景으로 한 形式에서 觀念山水圖 系列에 속하는 작품으로 파악하였다.(윤진영, 앞의 논문, pp. 256-262) 그러나 <신해생갑회지도>의 계획도는 실제의 계획장소를 그린 산수를 배경으로 한 실경산수도 계열의 작품임이 <신해생갑회지도>에 기재된 7언 율시 중 제 1수의 5.6구에 뚜렷이 밝혀져 있다.

¹⁶ <신해생갑회지도>는 1622년 작품으로 4백년에 가까운 시간을 거치며 전승되어 왔다. 이 때문에 계획도를 중심으로 봤을 때 좌변의 손상이 관찰되며, 우변 아래 측에 기재된 좌목에 글자 결락이 있다. 그리고 서문의 중간부분에 지면이 뜯겨져 3글자의 결락이 확인된다.(도 1; 文化部 文化財管理局, 앞의 책, p. 224)

비교/대조하여 확정된 원문을 토대로 상세히 분석하는 데에 역점을 두었다. 한편 기존 연구 자료를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심층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또한 각각 상이하게 기술된 부분도 있어서 통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신해생갑회지도〉의 구성, 회소성, 계획장소, 계획도의 유형, 계획도의 구도, 화풍에 대해 심도 있는 연구를 진행하고 끝으로 좌목·서문·7언 율시 2수를 차례대로 상밀하게 분석하였다.

Ⅲ. 〈辛亥生甲會之圖〉의 구성과 계획장소

1. 〈辛亥生甲會之圖〉의 구성

〈신해생갑회지도〉는 辛亥生 동갑생인 이대기·정인준·홍순각 3인의 지방 사족이 갑계를 맺고 그 모임을 기념하기 위하여 제작한 軸形式으로 된 동경계획도이다.¹⁷ 〈신해생갑회지도〉는 上·中·下 3단으로 구성되어 있다(도 1). 상단은 篆書로 “辛亥生甲會之圖”가 묵서되어 있고, 중단에는 계획장소와 계획 장면을 그린 계획도가 있으며, 하단에는 참석자의 좌목·서문·7언 율시 2수가 차례대로 적혀있다. 이처럼 상·중·하 3단에 하단이 좌목·서문·시 순으로 기재된 구성은 매우 독특하면서도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 〈신해생갑회지도〉와 같은 축형식의 계획도는 17세기까지 지속된 裝潢形式인데, 이러한 동경계획도는 계획도 제목(표제)·계획도(그림)·좌목의 3단 구성이거나, 계획도 제목·계획도·시(혹은 서·발문)·좌목 4단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¹⁸ 그런데 〈신해생갑회지도〉는 서문이 좌목 다음에 기재되어 있고, 또 시까지 포함되어 1단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경우는 조선시대 동경계획도 및 17세기 동경계획도에서는 확인되지 않는 독특한 구성으로, 일반적인 동경계획도의 구성과는 다르다는 점이 주목된다.¹⁹

상·중·하 3단은 朱線을 횡으로 그어 구분했고, 하단에는 다시 23줄의 縱線을 주선으로 그

¹⁷ 이대기와 정인준은 각각 영남의 陝川과 草溪의 사족으로 갑계를 맺을 당시 포의로 있었고, 홍순각은 함천군수로 있었으므로, 지방 사족과 지방 관리가 맺은 계획이다. 그러나 동경계는 관직을 공통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동갑생들이 맺는 계획 유형이므로 지방 사족이 맺은 동경계획으로 파악하는 것이 타당하다.

¹⁸ 윤진영, 앞의 논문, p.32.

¹⁹ 조선시대 동경계획도는 확인되는 바로 〈壬癸契會圖〉(1613) 2점과 〈乙丑甲會圖〉(1686) 2점이 있다. 〈임계계획도〉(도 2)는 계획도 제목·계획도·시·좌목 4단 구성이고, 〈을축갑회도〉(도 3)는 계획도 제목·계획도·좌목 3단 구성이다. 그러므로 〈신해생갑회지도〉와 같이 상단은 계획도 제목, 중단은 계획도, 하단은 참석자의 좌목·서문·7언 율시 2수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는 동경계획도에서 매우 예외적이고도 특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어 행을 마련했다.²⁰ 하단의 첫 3행은 좌목으로, 생일의 순서에 따라 계회 참석자 3인의 관직 및 급제 이력·姓名·字·태어난 月日·本貫·거주지·堂號 및 號가 적혀있다. 이어 17행은 갑계의 전말이 기록된 서문이 적혀있고, 끝 4행에는 7인 읍시 2수가 적혀 있다.²² 좌목과·서문·시는 모두 24행이다. 행마다 글자 수는 동일하지 않으나 글자가 쓰이지 않은 빈 행은 없는 것으로 봐서 행의 수에 따른 글자 수를 고려하여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계회도가 있는 중단과 좌목 부분 하단의 비율이 엇비슷하여 시각적인 안정감을 준다. 주선이 그어져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미에 방해가 되지는 않으며, 하단이 조밀하고 단정하게 기재되어 있다.

2. 희소성

〈신해생갑회지도〉는 보물로 지정된 이후 현재 까지도 희소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현재 남아있는

조선시대 동경계회도 수는 매우 적은 편인데, 그중 〈신해생갑회지도〉와 같이 산수를 배경으로 한 동경계축도는 동시대 17세기 초 작품 〈壬癸契會圖〉(도 2)가 유일하다.²³ 〈임계계회도〉와 〈신해생갑회지도〉를 견주어 보면 구성에 있어서 〈신해생갑회지도〉가 완비되어 있으면서도 조밀함이 판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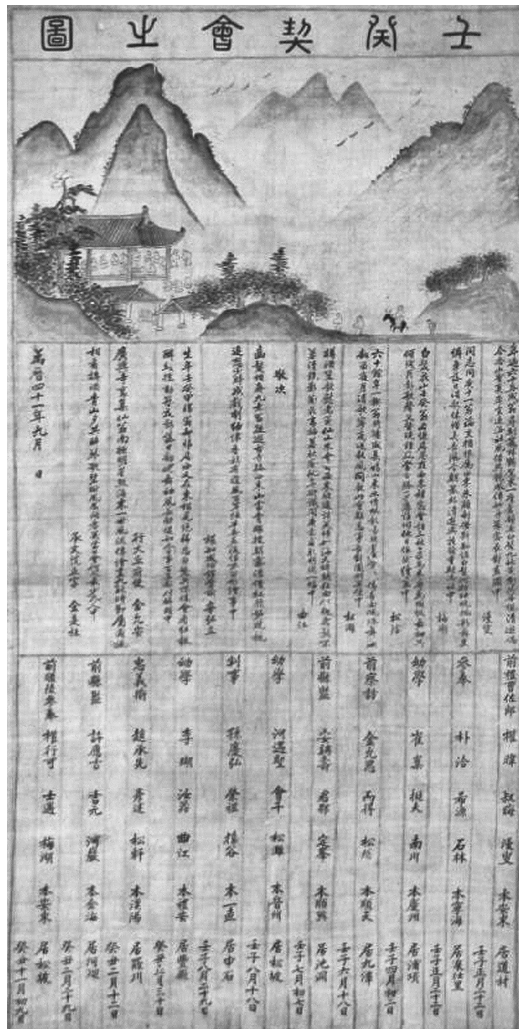
도 1 〈辛亥生甲會之圖〉, 1622년, 絹本淡彩, 88.9×57.0cm, 국립중앙박물관소장(文化部 文化財管理局, 앞의 책, p. 224)²¹

²⁰ 文化部 文化財管理局, 앞의 책, p. 224.

²¹ 단, 제작연대가 『動産文化財指定報告書(90指定篇)』에는 1619-1622년으로 되어있으나, 서문이 1622년 가을에 지어졌으므로 〈신해생갑회지도〉는 1622년 겨울경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1622”로 수정하였다.

²² 『動産文化財指定報告書(90指定篇)』에는 좌목에 ‘관직 및 급제이력’이 ‘관직’으로 되어 있고, ‘堂號 및 號’에 대한 기록이 누락되었다.(文化部 文化財管理局, 앞의 책, p. 224) 좌목의 첫째항목에 이대기와 홍순각은 관직명이 기재되어 있으나 정인준은 급제이력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관직 및 급제이력’으로 수정하였다. 또한 마지막 항목에 이대기는 당호가 기재되어 있고 정인준과 홍순각은 호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堂號 및 號’를 추가하였다.

²³ 확인되는바 현전하는 조선시대 동경계회도는 〈임계계회도〉(1613) 2점, 〈靑楓契帖〉(1620), 〈庚辰同庚契帖〉(1641년 이후), 〈을축갑회도〉(1686) 2점, 〈壽甲契帖〉(1814), 〈金蘭契帖〉(1857)이 있다. 이중 축형식의 계회도는 〈임계계회도〉와 〈을축갑회도〉가 있지만, 〈을축갑회도〉는 廳舍를 배경으로 계회 장면을 강조한 형식이다. 〈을축갑회도〉에 대해서는 윤진영의 「乙丑甲會圖」研究, 참고.(윤진영, 「乙丑甲會圖」研究, 『美術資料』, 69(2003), pp. 69-88)



도 2 <壬癸契會圖>, 1613년, 紙本淡彩, 59.0×120.5cm, 개인 소장(윤진영, 앞의 논문, p. 464)

된다. 우선 <임계계획도>는 계획의 전망을 알 수 있는 서문이 빠져 있다. 그러나 서문이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획도를 제외한 나머지 좌목과 시가 전체의 3%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계획도와 하단의 비율이 엇비슷한 <신해생감회지도>에 비하여 영성한 느낌을 준다. <임계계획도>는 시가 1단, 좌목이 1단으로 되어 있어 넓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행과 행 사이에 남는 공간과 글자와 글자 사이를 띄운 부분이 매우 많고도 넓다. 그리고 시는 주선으로 그어진 종선이 10줄이고 좌목은 그보다 2배가 되는 21줄이다. 이렇게 단마다 그어진 종선의 수가 다르다보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간적으로 불안감을 주어 조밀하고 안정적인 <신해생감회지도>와 대조적이다. 결론적으로 <신해생감회지도>는 조선시대의 동경계획도 뿐만 아니라 17세기 동경계획도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위상이 특별하면서도 희소한 것으로 판명되는데, 이점은 또한 회화사(미술사)적 의의와 비중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사료된다.

3. 계획장소 및 계획도 유형

앞서 연구검토를 통해 실제의 계획장소가 밝혀지지 않음으로 인하여 계획도의 형식을 지도식이나 관념산수도 계열에 속하는 작품으로 잘못 파악하였음을 살폈다. 그런데 계획장소에 대한 기록이 정인준의 『귀담실기』에서 발견되었고 계획도가 실경을 묘사한 實景山水圖(實景山水畫)임을 명백하게 입증하는 기록이 하단 7언 율시에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다. 우선 『귀담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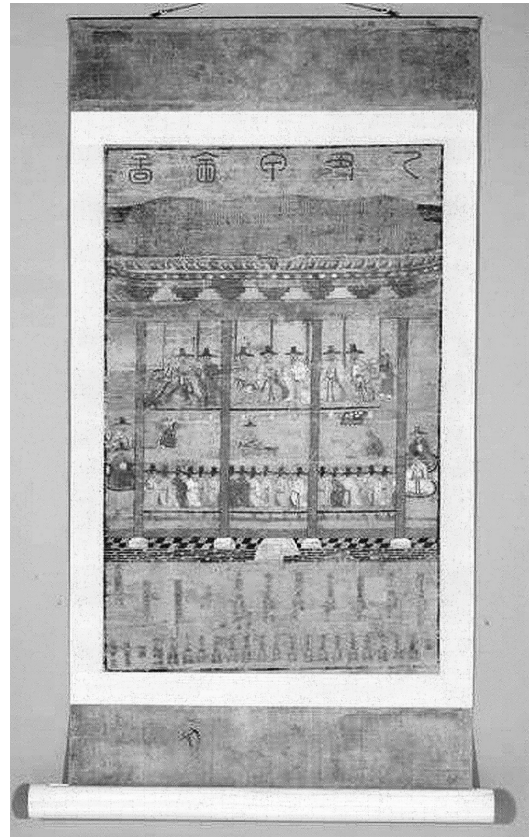
에 실려 있는 실제의 계획장소에 대한 기록부터 살펴보겠다.

만년에 울진리에 거처를 정하여 龜湖 가에 정사를 축조한 뒤 龜潭이라 자호하고 소나무 수십 그루를 기르며 날마다 서성이면서 시가를 읊었다. 인하여 정사의 명칭을 松亭이라 하였다.²⁴

설학 이대기, 쌍백당 홍순각과 감계를 맺고 매해 모춘에 송정에서 모여 우유하고 함영하며 즐거워하여 형제를 있었다. 그 德義와 풍류는 은근히 기영회·진술회의 풍취가 있는듯하였다.²⁵

기록에서 확인되듯 계획장소는 정인준이 합천 울진리에 지은 정사 송정이었고 이곳에서 생일인 모춘에 모여 계획을 가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기록을 통해 송정 주변에는 소나무 수십 그루가 심겨져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이점이

계획도에 완전히 묘사되어 있다. 계획도의 화면 중앙 계획 장면을 소나무 십수 그루가 감싸고 있는 것이다. 또 계획도에는 위의 주산을 중심으로 하여 상하좌우로 山群이 그려져 있고 근경에는 강줄기를 나타내는 두 줄기의 선이 그려져 있는데,²⁶ 이는 실제 합천 울진리의 실경과 합치한다.



도 3 <乙丑甲會圖>, 1686년, 絹本彩色, 136.5×71.2cm, 서울 歷史博物館(윤진영, 앞의 논문, p. 465)

²⁴ 鄭仁濬, 『龜潭實記』卷2, 「遺事狀」, “晩年卜居于栗津 築精舍於龜湖上 自號龜潭 養松數十株 日盤桓吟哦 因名松亭”

²⁵ 鄭仁濬, 『龜潭實記』卷2, 「遺事狀」, “與李雪壑【大期】洪雙栢【純愨】爲甲契 每歲春暮 會于松亭 優遊涵泳 樂而忘形 其德義風流 隱若有者 英真率之趣”

²⁶ 『動産文化財指定報告書(90指定篇)』에는 “近景에는 길을 나타내려는 듯 두 줄의 평행한 선을 산허리에 끼워 넣은 것이 이채롭다.”고 기술되어 있으나, (文化部 文化財管理局, 앞의 책, p. 225) 이 “두 줄의 평행한 선”은 길이 아니라 바로 울진리 아래의 접경을 감싸 흐르는 黃江이다. 실제 계획장소와 실경산수도임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계획도만을 가지고 분석하다보니 이렇게 파악했던 것으로 추측된다.

합천 울진리는 위쪽의 주산을 중심으로 좌우에 산군이 포진해 있고 아래로는 낙동강으로 흘러드는 黃江이 접경을 흐르고 있다. 그리고 황강의 아래로는 다시 산군이 형성되어 있다. <신해생갑회지도>의 계획도에서는 비록 대칭적인 구도로 산세가 정형화되고 간략하게 묘사되었으나 松林과 황강의 표현, 산세가 완전히 합천 울진리의 실경을 묘사하고 있음이 간취된다.

<신해생갑회지도>의 계획도가 실경을 묘사한 것임을 명백하게 입증하는 기록이 하단에 기재된 7언 율시 중 제 1수의 5·6구에 보인다.

누가 경관을 이 그림에 옮겨

반쪽에 의연히 지난날의 모임을 그렸나²⁷

5구를 직역하자면 ‘누가 物色을 가지고 지금 그림에 옮겨가 된다. “物色”은 자연의 경치로 계획도에 묘사된 울진리의 산세, 황강, 송림 등을 말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계획참석자인 이대기가 직접 계획도가 실경을 묘사하였음을 밝혀놓았으므로 <신해생갑회지도>가 실경산수도임의 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므로 어떻게 실경이 묘사되어 있는지를 규명하는 한편 산세가 단순화 혹은 정형화되어 대칭적인 구도로 묘사되어 있는 점이 설명되어야 한다.

그런데 그 단서를 <신해생갑회지도>의 계축도 제작 경위에서 찾을 수 있다. 서문에 “올해 가을에 덕연(정인준)의 아들 鄭生 灌이 한양에서 나에게 계축도를 하나 보내왔는데, 그 지면은 비워 두었다. [今年秋德淵子鄭生 灌自京送余契軸圖一道而虛其面]”고 하였다. 이 기록으로 볼 때 계획도는 한양의 화사를 통해서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당시 정인준은 합천에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계축도를 합천에서 제작하였거나(합천의 화사를 통해) 한양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제작하였다면 굳이 정인준의 아들 정탁이 한양에서 보냈을 리가 없다. 즉, 정인준의 뜻을 받들어 정탁이 한양으로 올라간 뒤 한양의 화사를 통해 계축도를 제작하였고 이것을 백령도에 있던 이대기에게 보냈을 개연성이 매우 높은 것이다. 정탁이 실경을 한양의 화사에게 들려주어 계획도가 그려졌기 때문에 계획 장면이 정중앙에 위치하게 되었고, 좌우 혹은 상하좌우로 대칭적인 구도를 갖게 되었을 공산이 크다. 이러한 전형화(정형화)된 구도로 인하여 김보미는 지도식에 해당하는 작품으로 보았던 것이며²⁸ 윤진영은 관념산수화로 보고 중앙집중식 구도를 취하고 있다고 한 것

²⁷ <辛亥生甲會之圖> 下段의 7言 律詩 2首 중 제 1수의 5·6구, “誰將物色今移畫 半幅依然昔所云”

²⁸ 김보미는 16세기 계획도를 屋外契會에서 實景山水式, 觀念山水式, 地圖式 3항목으로 구분한 뒤 <신해생갑회지도>를 지도식에 해당하는 작품에 해당시켰다.(김보미, 앞의 논문, p. 20-35) 이는 <신해생갑회지도>가 중앙의 계획

으로 보인다.²⁹

종합해보면 이대기가 시구에 실경을 묘사한 것임을 밝혀놓았고 또 실경인 소나무 수십 그루와 황강이 묘사되어 있어 실경산수도임은 명확하다. 그러나 전형화/정형화된 대칭적인 구도와 산세, 송정이 묘사되지 않은 점, 합천에 거주하고 있던 정인준의 아들 정탁이 한양에서 백령도에 있던 이대기에게 보낸 점으로 볼 때 계축도는 한양의 화사를 통해 제작되었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 가령 한양의 화사를 통해 제작한 것이 아니라면 굳이 한양에서 보냈을 리가 없고, 또 화사가 실경을 보고 그랬다고 한다면 상하좌우 대칭구도로 산세가 정형화되거나 계획장소 송정이 묘사되지 않았을 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계축도는 한양에서 활동하던 화사에 의해 제작되었던 것으로 추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한양에서 활동하던 화사가 정탁이 전하는 실경에 대한 얘기를 듣고 계획도가 그려졌기 때문에 실경산수도이지만 계획장면을 중심으로 상하좌우 대칭적인 구도로 산군이 묘사되었던 것이다.

IV. 계획도의 구도와 화풍

〈신해생갑회지도〉의 계획도를 구도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近景에는 巖山이 그려져 있고 그 위에 황강이 두 줄기의 선으로 그려져 있다. 中景에는 화면 중앙의 큰 암반 위에 주인공 3인 및 좌우 2명씩 배석자 4인, 우측에 시중드는 2인 총 9인이 點景人物로 묘사되어 있고,³⁰ 이를 송림이 두르고 있다. 이를 중심으로 하여 상하좌우에 대칭적인 구도로 산군이 그려져 있다.³¹ 後景에는 정중앙의 주산을 중심으로 하여 좌우로 산맥이 계획장소를 감싸고 있는 형상이다. 계획장소와 산사이는 여백에 의한 공간감이 표현되어 있으며, 俯瞰法으로 전체를 조망하는 시점을 취하여 시선을 중앙으로 유도한다.³² 산에는 16세기 초에 유행한 安陞派 화풍의 특징인 短線點皴이 구사되

장면을 중심으로 배경 산수를 대칭형으로 포치하였기 때문으로 추측된다.(김보미, 앞의 논문, p. 21)

²⁹ 윤진영은 “背景의 主山과 좌우의 狹山들로 에워싸인 中央集中式 構圖를 취하였다.”고 하였고(위의 논문, pp. 204, 262) 계획도의 유형을 山水를 背景으로 한 形式에서 觀念山水圖 系列에 속하는 작품으로 파악하였다.(윤진영, 앞의 논문, pp. 256-262)

³⁰ 文化部 文化財管理局, 앞의 책, p. 224.

³¹ 李源福, 앞의 논문, p. 5; 文化部 文化財管理局, 앞의 책, pp. 224-225. 윤진영은 “背景의 主山과 좌우의 狹山들로 에워싸인 中央集中式 構圖를 취하였다.”고 하여(위의 논문, pp. 204, 262), 대칭적인 구도로 파악한 이원복, 안휘준과는 다른 시각으로 기술하였다. 그가 이렇게 기술한 것은 중앙에 위치한 계획 장면을 중심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³² 李源福, 앞의 논문, p. 5.

어 있고 黑白의 대조도 강하게 묘사되어 있는데, 자연묘사가 주가 되고 인물을 작게 표현한 점과 함께 17세기 作品이면서도 16세기 전반의 전통을 강하게 保持하고 있다.³³

〈신해생갑회지도〉의 선행연구에서 계획도의 구도를 각각 달리 기술한 부분이 발견된다.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김보미는 계획도의 유형을 지도식으로 파악하였고, 윤진영은 중앙집중식 구도를 취하고 있다고 하였다. 김보미의 경우 중앙의 계획 장면을 중심으로 배경 산수를 대칭형으로 포치하여 나타낸 전형적인 조선시대의 그림지도 양식으로 보아 지도식에 해당시킨 것인데,³⁴ “계획 장면은 조감법으로 그려 시선을 중앙으로 집중시킨다.”고 하여³⁵ 윤진영이 중앙집중식 구도로 본 시각과 큰 차이가 없다. 그 이전에 이원복과 안휘준은 각각 “上下左右에 대칭적인 구도로 山群이 그려져 있고”, “上下左右로 약간의 여백을 두고 산을 半月形으로 빙 둘러었으므로 자연히 좌우 대칭을 이루며”라고 기술하여 모두 대칭구도로 파악하였는데, 이는 구도를 중심으로 기술한 것이다.³⁶ 김보미와 윤진영의 기술은 기존의 대칭구도와 위배되는 것이 아니며 단지 화면 중앙의 계획장면을 중심으로 기술하였기 때문에 표현이 달라진 것이다. 그러므로 각각의 논의를 통합해보면 ‘화면 중앙의 계획 장면을 중심으로 상하좌우에 대칭적인 구도로 산군이 포진해 있어 시선을 중앙으로 집중시킨다.’는 것으로 최종 정리해 볼 수 있다.

안휘준은 〈신해생갑회지도〉를 “산에는 16세기 초에 유행한 안견파의 단선점준이 구사되어 있고 …… 자연묘사가 주가 되고 인물을 작게 표현한 점과 함께 17세기 作品이면서도 16세기 전반의 전통을 강하게 保持하고 있다”고 하였다.³⁷ 안견파 단선점준의 구사는 선행연구에서 공통적으로 기술한 바이므로 〈신해생갑회지도〉에 구사된 점을 통해 17세기 초까지 안견파 화풍이 계승되고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그런데 화풍뿐만이 아니라 구도도 16세기 전반 안견파 산수화의 구도가 계승되었음을 볼 수 있다. 안휘준은 『한국 회화사 연구』에서 16세기 전반 안견파 산수화의 구도를 편파이단구도, 편파삼단구도, 대각선구도, 대칭구도로 나누어 서술한 바 있다.³⁸ 그리고 그는 『動産文化財指定報告書(90指定篇)』에서 좌우 대칭을 이룬다고 하였고, 또 “자연묘사가 주가 되고 인물을 작게 표현한 점과 함께 17세기 作品이면서도 16세기 전반의 전통을 강하게 保持하고 있다”고도 하였다. 따라서 〈신해생갑회지도〉는 자연묘사가 주가 되고 인물이 작게 표현

33 文化部 文化財管理局, 앞의 책, p. 225.

34 김보미, 앞의 논문, p. 21.

35 위의 논문, p. 34.

36 李源福, 앞의 논문, p.5; 文化部 文化財管理局, 앞의 책, pp. 224-225.

37 文化部 文化財管理局, 앞의 책, p. 225.

38 안휘준, 『한국 회화사 연구』(시공아트, 2012), pp. 414-427.

된 점, 안견파 단선점준이 구사된 점, 안견파 산수화의 대칭구도가 간취된다는 점에서 17세기 초까지 16세기 초 안견파 산수화의 구도와 화풍의 계승 및 영향이 확인되는 작품임을 추론할 수 있다. 즉, 17세기 초 실경산수도 작품인 〈신해생갑회지도〉에서 16세기 초 안견파 산수화의 구도와 화풍의 계승이 확인된다는 것인데, 이는 16-17세기 회화양식의 변천을 이해함에 있어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준다. 따라서 〈신해생갑회지도〉는 17세기 회화양식의 규명에 그 단서를 제공하므로 이 분야의 회화사 연구에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V. 〈辛亥生甲會之圖〉의 座目·序文·7言律詩 2首 연구

〈신해생갑회지도〉 하단에 기재된 좌목·서문·7언 율시 2수에는 갑계의 결성배경 및 전말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가 담겨 있다. 좌목에는 참석자의 인물정보가 담겨 있고, 서문에는 갑계의 결성배경 및 전말, 계획의 성격, 건축도의 제작자 및 제작 시기, 건축도를 그린 화원, 〈신해생갑회지도〉의 제작 시기, 계획참석자가 처했던 당시의 시대적 상황 등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으며, 7언 율시 2수에는 〈신해생갑회지도〉의 계획도 유형을 추정할 수 있는 기록과 계획을 갖던 당시의 풍경 및 감회, 시를 지었던 당시의 감회 등이 적혀 있다. 원문은 『설학집』과 『귀담실기』를 〈신해생갑회지도〉와 비교/대조하여(교감) 확정하였으나, 앞에서 예를 들어 보인 바와 같이 교감 수가 많고 내용이 번다하므로 본고에서는 일일이 교감사항을 들지 않았다. 그리고 교감에는 이원복의 「辛亥生甲會之圖」와 『動産文化財指定報告書(90指定篇)』에 실린 원문을 또한 참고하였다.

1. 〈辛亥生甲會之圖〉의 座目 분석

·통훈대부 전 행 청풍 군수 이대기(1551-1628), 자任重, 3월 3일 생, 본관 全義, 초계 거주, 당호 安知堂.³⁹

·성균 진사 정인준(1551-1625), 자德淵, 3월 13일 생, 본관 瑞山, 합천 거주, 호 龜潭.⁴⁰

³⁹ 이대기는 1608년 6월에 淸風 郡守에 제수되었다.(李大期, 『雪壑集』 卷3, 「年譜」 참고) 安知堂은 1617년 이대기의 거주지 초계에 지어졌는데,(李大期, 『雪壑集』 卷3, 「年譜」 참고) 여기서는 이대기의 당호로 쓰였다.

⁴⁰ 이대기와 홍순각은 관직이 기록되었는데, 정인준은 1579년(선조 12) 진사시에 급제한 급제이력을 기재한 것으로 보아 관직을 역임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물년은 『龜潭實記』 「遺事狀」에 근거하여 추가하였다.(鄭仁濬, 『龜潭實記』 卷2, 「遺事狀」, “以是年冬十二月十二日卒 年七十五 而實仁廟改紀之三年乙丑也”)

·통훈대부 행 합천 군수 홍순각(1551-?), 자 謹初, 본관 南陽, 3월 22일 생, 西原(淸州) 거주, 호 雙栢堂⁴¹

계회 참석자 3인의 관직 및 급제이력·성명·자·태어난 월일·본관·거주지·당호 및 호가 차례로 적혀있다. 이대기의 경우 그의 호 '雪壑'이 아닌 당호가 기재되어 있고, 정인준의 경우 관직이 아닌 급제이력이 기재되어 있어 각각 나머지 2인의 기록과 구별된다. 생일을 보면 알 수 있듯 3인은 모두 3월생으로, 동년동월 생이다. 이대기의 거주지인 초계와 정인준의 거주지인 합천은 영남의 이웃한 고을이고, 홍순각의 거주지는 호서 청주로 초계, 합천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이렇게 거주지 간에 상당한 거리격차가 있음에도 감계가 결성될 수 있었던 배경이 서문의 앞머리에 보인다.

2. 〈辛亥生甲會之圖〉의 序文⁴² 분석

만력 정사(1617, 광해군 9) 연간에 서원(청주)에 거주하는 홍군 근초가 합천의 군수가 되었다. 내가 거주하는 초계는 합천과 이웃해 있고, 정군 덕연은 바로 합천 사람이다. 나는 덕연과 가까운 곳에 거주하고 뜻도 맞아서 어릴 적부터 백발에 이르렀고, 근초는 20년 전에 한번 우연히 만났었으나 호서와 천리나 떨어져 있어 얼굴을 볼 수 없었더니, 마침 가까운 고을에 수령이 되어 어느 날 서로 만나게 되었다. 살아온 이야기를 하다가 태어난 해를 물으니 신해 생(1551)이라 하고, 태어난 달을 물으니 暮春(음력 3월)이라 하였다. 나와 같은 해 같은 달에 태어났으니, 태어난 날은 내가 초 3일, 근초는 22일이다. 稀年(일흔 살)은 세상에 참으로 드문 일이고 같은 해 같은 달에 태어남도 드문 일이다.⁴³

이대기와 정인준은 나이도 같고 마을도 이웃하여 어릴 때부터 사귀 친구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홍순각은 이대기와 20년 전 우연히 만난 적이 있는데, 그가 합천 군수에 임명되어 어느 날 재회하게 되었다. 20년 전이면 1597년으로 丁酉再亂이 발발했던 해이다. 이대기는 임진왜란

⁴¹ 〈辛亥生甲會之圖〉 下段의 座目,

“通訓大夫前行淸風郡守李大期 字任重 三月三日生 本全義 居草溪 安知堂

成均進士鄭仁濬 字德淵 三月十三日生 本瑞山 居陝川 龜潭

通訓大夫行陝川郡守洪純愨 字謹初 三月二十二日生 本南陽 居西原 雙栢堂”

⁴² 〈신해생갑회지도〉 하단에 기재된 서문은 『설학집』에는 「甲會圖誌」라는 제목으로, (李大期, 『雪壑集』 卷3, 「甲會圖誌」) 『귀담실기』에는 「後序」로 (鄭仁濬, 『龜潭實記』 卷2, 「後序」) 각각 실려 있다.

⁴³ 〈辛亥生甲會之圖〉 下段의 序文, “萬曆丁巳間 西原洪君謹初郡陝川 余居草溪與陝鄰而鄭君德淵乃陝人也 余與德淵居近志同 自髫年至于白首 而謹初則二十年前一嘗邂逅 而千里湖西 顏面未由 適宰近城 一日相值 語及平生 問其生則曰辛亥 問其月則曰暮春 與余同年同月生而余之日在初三 謹初之日在念二 稀年在世固是罕事 而同年同月又是罕事”

당시 초계에서 灌溪 全致遠과 의병을 일으켜 의병장으로 활동하며 초계방어와 낙동강을 오르내리는 왜적을 물리치는 등 영남우도 방어에 공을 세웠다.⁴⁴ 정유재란이 발발했을 때에도 이대기는 義興에서부터 募兵하여 火旺陣(火旺山城)으로 달려가 忘憂堂 郭再祐 등과 죽을 각오로 맹세하며 국난에 임했다.⁴⁵ 즉, 이대기가 의병장으로 활동하던 시기에 우연히 홍순각과 만났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다.

이대기는 임진왜란 때 세운 공로가 인정되어 관직에 진출하였으나 갑계를 맺었던 당시는 정치적 상황으로 인하여 고향 초계에서 은거하고 있었는데, 이때 홍순각이 합천 군수로 발령받아 왔다.⁴⁶ 초계에서 이대기는 명문사족출신이자 의병장으로서 국가에 공로를 세운 유망한 인사였으므로 홍순각은 그의 명성을 들었을 것이고,⁴⁷ 또한 과거에 한번 만난 적이 있었으므로 어떤 기회를 통해서건 만남을 가졌던 것으로 추측된다. 이대기와 홍순각은 20년 만에 다시 만나 서로 그간의 소회를 풀면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이대기가 홍순각에게 태어난 연월을 물었고 공교롭게도 자신과 동년동월 생임을 알게 되었다. 태어난 해도 같은데 달까지 같은 경우는 매우 드문 경우이므로 이대기는 놀랍고도 반가웠던듯하다. 이대기는 신해 생(1551년)이므로 홍순각과 만났던 1617년 당시의 나이는 67세 인데, 원문에 “穉年”이라 한 것은 어림잡은 수를 든 것으로 보인다.

내가 근초에게 말하기를, “나와 자네는 100년에 반은 더 살았으니, 남은 생이 얼마나 되겠는가? 물 위에 부평초처럼 서로 만나게 되었으니, 모이고 흩어짐을 기약하기 어렵네.⁴⁸ 어찌 그대의 재임기간 중에 甲契라 이름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나는 집에 있고 자네는 고을을 다스리니, 해마

⁴⁴ 金德珍, 위의 논문, pp.123-139.

⁴⁵ 李大期, 『雪壑集』卷3, 「年譜」, “二十五年【我宣祖三十年】丁酉【先生四十七歲】島江再綱 自義興募兵 赴火旺陣 與郭忘憂堂 成芙蓉堂 安義 安磊谷 全英叟諸公 乃積薪置火而盟曰 城若陷則當蹈火而死 不污於賊手【時清正 引兵逼城 爲盟誓死 以肅軍心】……”

⁴⁶ 이대기는 의병장으로 활동하던 1592년 8월에 공로를 인정받아 掌苑署 別提에 임명되었고, 1594년 黃山道 察訪, 1595년 義興 縣監에 제수되었으며, 1599년 2월에는 通訓大夫 刑曹佐郎에 제수되었다가 이윽고 刑曹正郎으로 승배되었다. 또 1600년에 盈德 縣令에 제수되었다. 이후 1608년 6월에 淸風 郡守에 제수되어 재직하던 중 1613년 영창대군이 수감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청풍 군수의 인끈을 풀고 귀향하여 1617년 홍순각과 재회하였을 때까지 초계에서 은거하고 있었다.(李大期, 『雪壑集』卷3, 「年譜」참고)

⁴⁷ 이대기 가문은 진주에 세거하며 관리를 계속 배출했던 명문사족이었다.(李大期, 『雪壑集』卷3, 「世系圖」참고) 그리고 이대기는 외조부인 黃江 李希顔과 영남의 대학자 南冥 曹植, 守愚堂 崔永慶을 사사하였다.(李大期, 『雪壑集』卷3, 「年譜」참고)

⁴⁸ 王勃의 「滕王閣序」에 “물 위에 부평초처럼 서로 만나니, 모두가 타향의 나그네이다.(萍水相逢 盡是他鄉之客)”라는 글이 있는데, 『詳說古文眞寶大全後集』(學民文化社, 1992), p. 108) 이 글귀를 인용하여 우연히 서로 만나게 되었음을 표현한 것이다.

다 왕래한다면 그대의 임기를 마치기 전에 수삼 년 모임을 가질 수 있을 것이네. 또한 즐겁지 않겠는가? 그리고 자네가 다스리는 고을에 정덕연이라는 이가 있는데, 역시 동년동월 생으로 나보다 10일 늦게 태어났으니, 이 모임에 이 사람이 빠질 수 없네.” 하였다. 근초가 “좋다.” 하였다. 이에 세 노인이 初度日(생일)에 두 동이의 술(朋酒)로 초대하기로 하니, 내가 먼저이고, 덕연이 그 다음이고, 근초가 마지막이다.⁴⁹

20년 만에 재회한 것도 인연인데 동년동월 생도 참으로 드문 경우였으므로 이대기는 홍순각에게 감계를 제의하였고, 홍순각은 그 제의를 흔쾌히 수락하였다. 그 기간은 홍순각이 합천 군수로 재임하는 기간에 한하였는데, 이는 홍순각이 청주사람이므로 임기가 끝나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홍순각이 합천 군수로 있는 잠시나마 교의를 나누고자 했던 이대기의 마음을 읽을 수 있을 듯하다. 여기에 동년동월 생의 이웃한 고을에 살던 정인준도 참여하였다. 이에 3인은 각자의 생일날 두 동이의 술로 초대하기로 한다.

무릇 세 노인은 蒼顏과 백발이 대략 서로 비슷하되, 모두 失路한 사람이다. 이 모임이 덕업과 풍류에는 비록 옛 기영회·진술회에 견주지 못하지만, 유유자적하고 우유함영하며 즐거워하여 형체를 잊음은 지금으로부터 옛 사람을 따를 수 있을 것이다.⁵⁰ 간략히 契法을 정하기를, “비바람을 피하지 않고, 예도에 구애되지 않으며, 태어난 날짜의 선후로 坐次와 行爵을 정한다. 덕연이 근초에게 있어서는 <근초가> 벼슬함은 먼저이나 좌차는 뒤이니, 대개 民主(백성과 수령)의 사이에 계법은 폐할 수 있는 바가 아니기 때문이다.” 하였다.⁵¹

이대기와 정인준은 당시 포의였고 홍순각은 군수로 관직이 낮았으므로 ‘길을 잃은 사람(失路之人)’이라고 한 듯하며, 기영회나 진술회는 송나라 때 학덕이 높은 원로들의 모임이었으므로

⁴⁹ <辛亥生甲會之圖> 下段의 序文, “余謂謹初曰 余與子百年強半 餘生幾何 萍水相逢 聚散難期 盍於子在郡之前 名之以甲契 我家子郡 每歲往來 則子之瓜未熟 可做數三年之會 不亦樂乎 且子之郡有鄭德淵者 亦同庚同月而後於我十日生 此間不可無此人 謹初曰諾 於是三老約於初度之日 朋酒相邀 余先而德淵次之 謹初終之”

⁵⁰ 기영회는 宋나라 文彦博이 西京 留守로 있을 때, 唐나라 白居易의 九老會 고사를 모방하여 학덕이 높은 富弼·司馬光 등 13인의 노인으로 구성된 모임으로, 관직은 무시한 채 나이로만 서열을 매긴 뒤 술과 시로 서로를 즐겼다. 진술회는 사마광이 벼슬을 그만두고 낙양에 있으면서 司馬旦, 席汝言 등 7인의 故老들과 만든 모임이다.

⁵¹ <辛亥生甲會之圖> 下段의 序文, “夫三老者 蒼顏白髮 略與相似而同是失路之人 是會也 德業風流 雖未擬於耆英 眞率 其放而自適 優游涵詠 樂而忘形者 可以自今而作古也 約法曰 風雨不避 禮度不拘 以日先後爲坐次爲行爵 而德淵之於謹初 爵則先而坐則後 蓋民主之間 非契法所能廢也”

그들의 덕업과 풍류에 비기지 못한다고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역임한 관직과 덕업을 떠나 고인이 누렸던 풍취 혹은 풍류는 따를 수 있음을 표현하였다. 좌차에 있어서 홍순각이 벼슬은 정인준보다 앞서지만 태어난 날은 정인준의 뒤이므로 좌차가 정인준의 다음이 되었다. 동경계(동갑계)는 동년생의 모임이므로 관직의 고하나 선후로 좌차를 정하지 않고 태어난 순으로 좌차와 행작을 정했던 풍습을 볼 수 있다.

무오년(1618, 광해군 10)에 이와 같이 하였고, 기미년(1619)에도 이와 같이 하여 장차 근초의 재직 기간으로(換魚)⁵² 기한을 삼았더니, 내가 경신년(1620) 2월에 임금의 명을(玦)⁵³ 받고 서쪽으로 유배 가서 모춘의 기약을 20일 격해두고, 비바람에 홀연 기약이 흩어졌다. 이전에는 세 노인이 마주할 때에 매번 근초의 官守에 기한이 있는 것을 한으로 여겼더니, 어찌 내가 서해 절도로 유배감이 도리어 이보다 앞설 줄을 생각이나 했겠는가? 인사는 대체로 알 수가 없다. 아! 지금 이렇게 한번 흩어져서 근초는 서원(청주)에 있고, 덕연은 江陽(합천)에 있고, 나는 白翎島에 묶여있어 아득한 우주 간에 회합할 기약이 없으니, 이후로 다시 만남은 단지 저승에서일 뿐이리라. 슬프다! 올해 가을에 덕연의 아들 鄭生 濯이 한양에서 나에게 契軸圖를 하나 보내왔는데, 그 지면은 비워두었다. 나는 계축도를 어루만지며 감흥에 젖었고, 이어 세 사람의 성명을 앞에 기록하고 그 전말을 뒤에 써서 한 본을 등사하여 정생에게 보내어 그로 하여금 그의 춘부당과 쌍백당에게 전하게 하였다. 천계 입술(1622, 광해군 14) 9월일에 안지당주인은 기록한다.⁵⁴

이대기의 주선으로 결성된 감계는 1618, 1619년 계획장소였던 송정에서 두 차례 모임을 가졌고, 세 번째 모임을 20일 앞둔 1620년 2월에 이대기가 서해 절도 백령도로 유배 감으로 인해 더 이상 모임은 지속되지 못하였다. 본래 홍순각은 그 지역 사람이 아니므로 관직을 옮기게 되면 계획을 지속할 수 없게 되어 그의 관직에 기한이 있는 것을 한으로 여겨왔던 터인데, 이대기 자신의 유

⁵² “換魚”는 ‘魚符’를 바꾸는 것으로 다른 관직으로 옮겨감을 말한다.

⁵³ “玦”은 佩玉의 일종인 노리개인데 環은 완전히 이어진 반면 玦은 터져 있으므로 訣別을 의미한다. 이 때문에 고대에 유배를 보낼 때에는 걸을 주고 석방할 때에는 돌아오라는 뜻으로 환을 주었다한다. 당시 정치적 상황에 의해 이대기가 귀양을 가서 계획을 가질 수 없게 되었음을 표현한 것이다.

⁵⁴ <辛亥生甲會之圖> 下段의 序文, “戊午如是 己未亦如是 將以謹初之換魚爲期 余於庚申二月受玦西遷 暮春之期 只隔二旬而風雨忽散 前此三老相對 每以謹初之官守有限爲恨 豈料余之嶺海 反先於此耶 人事蓋未可知也 吁 今此一散 謹初居西原 德淵居江陽 余纍白翎 悠悠宇宙 會合無期 此後重逢 只是泉路 悲夫 今年秋德淵子鄭生 濯自京送余契軸圖一道而虛其面 余撫圖興感 仍約法序書三人姓名於前 又叙作契顛末書諸後 膽一本送于鄭生 使之傳于其春府及雙栢堂云 天啓壬戌九月日 安知堂誌”

바로 계획이 지속되지 못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던듯하다. 그리고 서문의 내용으로 볼 때 이 대기가 백령도로 유배를 온 뒤 어느 시점에 홍순각은 고향 청주로 돌아간 것으로 보인다.⁵⁵

이 단락을 통해서 좌목과 서문의 저자(筆者)가 이대기임을 알 수 있고, 또한 계축도의 제작자와 제작 시기, 계축도를 그린 화원, <신해생갑회지도>의 제작 시기를 파악할 수 있는 정보가 담겨 있다. 당시 갑계를 기념하기 위하여 제작한 계축은 계획참석자 모두가 1부씩 소장하는 것이 상례였다. 그러므로 계축도는 3부가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이중 1부를 정탁이 이대기에 게 보낸 것이다. 기록에서 보이듯 1622년 가을 정인준의 아들 정탁이 한양에서 지면이 빈 계축도를 보내왔으므로, 계축도를 제작한 이는 정탁이고 그 시기는 1622년 여름경으로 추정된다. 정탁이 한양에서 계축도를 보내왔으므로 그가 부친 정인준의 뜻을 받들어 제작하였을 것으로 유추된다. 그리고 정인준은 합천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그의 아들 정탁이 합천이 아닌 한양에서 보내왔으므로 계획도는 한양에서 활동하던 화사를 통해 그려졌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 좌목과 서문의 필자는 이대기이고 그 글은 1622년 9월에 지어졌다. 서문에 시에 대한 기록은 없으나 이대기의 문집 기록을 통해 당시 시도 함께 지어졌던 것으로 추측된다.⁵⁶ 그렇다면 이대기는 1622년 9월 좌목·서문과 함께 7언 율시 2수를 지어 정탁에게 보냈고, 그를 통해 정인준과 홍순각에게 전하게 하였던 것임을 알 수 있다.

<신해생갑회지도>가 만약 이대기의 소장본이라면 그 제작 시기는 1622년 9월로 추정이 가능하다. 9월에 좌목과 서문이 지어졌으므로 당시 지면이 빈 계축도에 그 글을 기입하였을 것이기 때문이다. 정인준 혹은 홍순각의 소장본일 경우 <신해생갑회지도>의 제작 시기는 1622년 말 겨울경으로 추정된다. 이대기가 보낸 글이 정탁을 통해 정인준과 홍순각에게 전달되고, 정인준과 홍순각이 그 글을 받아서 각자 자신이 가지고 있던 계축도에 그 글을 기입한 시기가 <신해생갑회지도>의 제작 시기가 되기 때문이다. 서문을 통해 볼 때 당시 정인준은 강양(합천)에, 홍순각은 서원(청주)에 있었다. 그러므로 백령도에서 한양에 있는 정탁으로, 정탁에게서 합천과 청주에 있는 정인준과 홍순각에게 전달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헤아려보면 <신해생갑회지도>의 제작 시기를 추정해 볼 수 있다. 당시는 인편으로 전달되었기 때문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었을 것이나, 3개월을 넘기지 않았다고 봤을 때 서문이 1622년 9월에 지어졌으므로 <신해생갑회지도>는 1622년 겨울경에 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이 가능하다.

⁵⁵ 홍순각이 합천 군수에서 면직되어 돌아간 시기는 실록 등 여타의 문헌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다.

⁵⁶李大期, 『雪壑集』卷3, 「年譜」, “九月作甲會契帖叙【鄭龜潭之子濯 自京師送甲會契帖而虛其面 先生撫帖興感 因書三人姓名於前 又作叙書諸後 送一本 使之傳于其大人及雙栢堂 又賦詩二首以附焉】”

3. 〈辛亥生甲會之圖〉의 7言 律詩 2首 분석

제 1수

강양군(합천군) 집과 울진 마을(울진리)
성산을 바라다보며 한줄기 물(황강)에 나뉘었네
3갑이 당시에 모임을 갖던 곳이거늘
5년의 묵은 자취 진운에 들어갔네
누가 경관을 이 그림에 옮겨
반쪽에 의연히 지난날의 모임을 그렸나
周老보다는 많고 상산사호보다는 적은데
소나무 아래에 서리 맞은 흰 터럭 석양에 비치네⁵⁷

1·2구에서는 계획장소를 묘사하였다. 합천군 울진리에는 계획장소 송정이 있었다. 이대기는 초계군 城山里에서 태어났고, 이곳에서 거주하였다.⁵⁸ 성산은 정인준의 거주지 울진리와 이대기의 거주지 성산리 사이에 있는 산으로 추정된다. 울진리와 성산리는 그 사이를 낙동강으로 흘러드는 황강이 굽이굽이 흐르고 있으므로, '성산을 바라다보며 한줄기 물(황강)에 나뉘었다'고 한 것이다.

3·4구는 이대기가 유배됨으로 인하여 갑계 모임이 과거의 자취로 남게 되었음을 표현하였다. “秦雲”은 秦나라 서울인 咸陽의 구름으로, 곧 도성(한양)의 구름을 말하는데, 여기서는 이대기가 임금의 명을 받아 백령도에 유배되어 있음을 비유하였다. 갑계는 1617년 결성되었고, 정탁으로부터 계축도를 받고 서문과 시를 쓴 시기가 1622년 9월이므로 모임을 연 뒤 시를 쓰기까지 5년여가 된다. 즉, 그 5년여의 세월이 이대기가 백령도에 유배되어 있음으로 인해 묵은 자취가 되는 것이다.

5·6구에는 계획도의 그림이 실경을 묘사하였음을 표현하였다. 이 구를 통해서 〈신해생갑회지도〉가 산수를 배경으로 한 실경산수도 계열의 작품임이 명확하게 입증된다.

⁵⁷ 〈辛亥生甲會之圖〉 下段의 7言 律詩 2首 중 제 1수, “江陽郡舍栗津村 相望城山一水分 三甲當時期會地 五年陳跡入秦雲 誰將物色今移畫 半幅依然昔所云 多於周老少商皓 松下霜毛暎夕曛”

⁵⁸李大期, 『雪壑集』卷3, 「年譜」, “明世宗肅皇帝 嘉靖30年 - 明宗恭憲大王 6년(1551) - 辛亥 3월 초 3일 선생이 草溪郡 북쪽 城山里 마을에서 태어나다. [皇明世宗肅皇帝 嘉靖三十年【我明宗恭憲大王六年】辛亥三月初三日 先生生于草溪郡北城山里第”

7·8구는 계획도에 묘사된 갑계 참석자 3인의 모습을 표현하였다. “商皓”는 한나라 고조 때 상산에 은거해 살던 네 노인 東園公·綺里季·夏黃公·角里先生을 일컫는데, 모두 눈썹과 수염이 희었으므로 商山四皓라고 한다. “周老”보다는 많고 상산사호 4인보다는 적은 참석자 3인이 머리가 흰 채로 소나무 수십 그루가 심겨져 있던 송정에서 모임을 가졌던 모습을 묘사하였다. “周老”는 문맥으로 볼 때 2인을 가리킬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이는 무왕이 주나라를 창업하였을 당시 淸節을 다했던 伯夷와 叔齊를 지칭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⁵⁹ 상산사호와 백이숙제는 모두 정치를 떠나 은거하였던 인물들인데, 갑계가 맺어졌을 당시 이대기와 정인준도 조정을 떠나 은거하고 있었으므로 그들을 상산사호와 백이숙제에 견주어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제 2수

당일에 참 노늬 상상하면 의연하니
세 노인의 풍류 누가 앞서고 뒤서리오
고을의 매화는 비로소 열매 맺고
연못의 연 잎은 비로소 연잎(荷錢)을 내었네
봄비는 황강 저물녘에 어울리고
피꼬리와 꽃이 하늘을 어지럽히던 때였지
뛰어난 풍경 좋은 시절 사람들 즐기기 쉽거니와
이곳의 빼어난 경관 그림으로 전하기 어렵지⁶⁰

제 2수는 모임을 갖던 당시의 빼어난 풍경을 회상하고 있다. 계획을 갖던 3월 매화는 꽃이 지고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였으며, 연못에는 둥그런 연잎이 올라왔던 듯하다. 연잎은 그 모양이 마치 葉錢처럼 둥글기 때문에 ‘荷錢’이라 한다. 당시 황강이 저물어갈 때쯤 봄비가 내리면 그 경관이 더없이 좋았고, 피꼬리가 지지귀고 꽃향기가 물씬 풍기던 풍경이 눈앞에 그려지는 듯하다.

⁵⁹ “周老”는 송나라의 周敦頤를 지칭하는 용어로 쓰이기도 한다.

⁶⁰ <辛亥生甲會之圖> 下段의 7言 律詩 2首 중 제 2수, “真遊當日想依然 三老風流孰後先 上郡梅花初結子 下池荷葉始生錢 最宜春雨黃江暮 正是鶯花搖亂天 形勝芳辰人樂易 此間清賞畫難傳”

VI. 맺음말

본고는 선행연구검토를 통해 다양하게 발견되는 오류가 공통적으로 下段의 座目·序文·7言律詩 2首의 원문 확정의 미흡과 분석의 부재, 한문 해독 역량의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였음을 검증하고 좌목 부분이 <신해생갑회지도> 연구의 토대가 됨을 확인한 뒤 『雪壑集』과 『龜潭實記』의 비교/대조(校勘)를 통해 확정된 원문을 바탕으로 세밀한 분석에 역점을 두는 한편 기존의 연구 성과를 토대로 심층적인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에 기존의 오류는 수정하고 미흡한 부분은 보완하며 상이한 기술은 통합하여 합당한 도출을 이끌고 그동안 밝혀지지 않았던 <신해생갑회지도>의 다양한 정보 등을 규명하였다. 따라서 본고의 연구 성과는 크게 좌목 부분의 분석에 의한 것과 그 외의 부분으로 나누어 살필 수 있다.

먼저 좌목 부분의 연구 성과를 간명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전체적으로는 갑계의 결성 배경 및 전말의 종합적인 양상을 심도 있고 유기적으로 복원한 것이다. 세부적으로는 하나, 계축도의 제작자는 鄭仁濬의 아들 鄭濯이며 계축도의 제작 시기는 1622년 여름경임을 밝혔다. 하나, 계축도는 한양에서 활동하던 화사를 통해 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하나, <신해생갑회지도>의 제작 시기는 李大期의 소장본일 경우 1622년 9월, 鄭仁濬 또는 洪純嘏의 소장본일 경우 1622년 겨울경임을 논증하였다. 하나, <신해생갑회지도>가 實景山水圖임을 규명하였다. 다음으로 좌목 부분을 제외한 여타 연구 성과는 아래와 같다. 하나, <신해생갑회지도>의 구성이 조선시대 동경계축도 및 17세기 동경계축도에서는 확인 되지 않는 독특한 구성임을 밝혔다. 하나, <신해생갑회지도>가 매우 희소한 가치를 지니고 있고 그 비중과 위상, 작품의 완성도와 우수성, 미적 측면이 뛰어난 점을 논증하였다. 하나, 실제의 계획장소가 鄭仁濬이 만년에 陝川 栗津里 龜湖가에 축조한 정사 松亭임을 밝혔다. 하나, 계획도의 구도가 16세기 安陞派 산수화의 대칭구도와 친연성이 강하고 계획도에 安陞派 화풍의 특징인 短線點皴의 구사가 확인되어 17세기 초까지도 안전파 산수화의 구도 및 화풍이 영향을 미쳤음을 논증하였다.

이와 같은 본고의 연구 성과는 회화사/미술사, 계획도 연구에 보탬이 되며 문화재 정보의 경신/확장 및 가치의 재인식에도 기여되는데, 각 분야에 기여되는바에 따라 본고의 의의 또한 상응 하리라고 본다. 미술사적 측면으로 볼 때 계획 풍속과 제작 양상은 풍속사적 의의가 있고, 16세기 초 안전파 산수화의 구도와 화풍이 계승된 점은 자연모사가 주가 되고 인물을 작게 표현한 점과 더불어 17세기 작품이면서도 16세기 전반의 전통을 강하게 보지하고 있어 회화사의 흐름을 파악함에 있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다양한 정보는 그만큼 미흡했던 문화재 정보를 확장하고 경신하는데 보탬이 적지 않으며, 조선시대 동경계축도에서는 확인되지 않는 독특한 구성

과 희소한 가치의 규명은 보물로서의 가치를 재인식/재확인하는 가교가 될 것이다. 끝으로 향후 제기되는 연구 과제를 몇 가지 명시해보는 것으로 마무리하고자 한다. 하나, 보물이므로 좌목 부분의 원문 확정과 그 과정이 校勘을 통해 제시되어야 한다. 하나, 계획장소 松亭의 위치가 밝혀져야 한다. 하나, <신해생갑회지도>의 제작자(소장자)가 규명되어야 한다. 하나, 갑계의 결성과 전말이 당시 역사적 상황에 따른 계획참석자의 행적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하나, 이대기는 國難(壬辰·丁酉)에 공을 세웠고 昏朝에서 정치적 지조를 지켜 사상사/정신사에 뚜렷한 자취를 남김으로 인해 보물로서의 가치(회화작품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점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하나, 다양한 회화자료와의 비교 고찰이 이루어져야 하되 동일한 성격을 갖는 회화작품부터 시작해 그 범위를 넓혀가야 한다. 앞으로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기를 희망한다.

***주제어(key words)** 辛亥生甲會之圖(*Gathering of the Same-aged Scholars Born in the Year of Sinhae*), 李大期 (Yi Daegi), 鄭仁濬(Jeong Yinjun), 洪純愨(Hong Sungak), 甲契(fraternity of literati of the same age), 同庚契軸圖 (hanging scroll painting of the fraternity of the same-aged literati)

■ 투고일 2016년 9월 8일 | 심사개시일 2016년 9월 14일 | 심사완료일 2016년 11월 2일 ■

참고문헌

1. 원전류

- 『龜潭實記』, 鄭仁濬,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1907.
『詳說古文眞寶大全後集』, 景印本, 學民文化社, 1992.
『雪壑集』, 李大期, 성균관대학교 존경각 소장(재간본), 미상.

2. 한국문헌

- 공광성, 『嶧陽 文景虎 研究』, 경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金德珍, 『雪壑 李大期和 溜溪 全致遠의 義兵活動』, 『남명학연구』2, 1992, pp. 123-139.
김보미, 『朝鮮時代 契會圖 研究 : 16世紀 作品을 中心으로』, 홍익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김승혜, 『설학 이대기 연구』, 경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文化部 文化財管理局, 『動産文化財指定報告書(90指定篇)』, 信友美術株式會社, 1991.
설석규, 『남명문도를 찾아서 : 남명학파의 정치적 지조를 지킨 선비-설학(雪壑) 이대기(李大期)-』, 『선비문화』 13권, 2008, pp. 97-117.
신재근,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금궤도(金櫃圖)>연구』, 서울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안휘준, 『한국 회화사 연구』, 시공아트, 2012.
윤진영, 『<乙丑甲會圖> 연구』, 『美術資料』69, 2003, pp. 69-88.
_____, 『朝鮮時代 契會圖 研究』,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4.
李源福, 『辛亥生甲會之圖』, 『美術資料』39, 1987, pp. 1-6.
하영아, 『朝鮮時代의 契會圖 研究 : 16, 17세기 作品을 中心으로』,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2.

국문초록

본 연구는 보물 제1045호 <辛亥生甲會之圖>의 제작 양상과李大期, 鄭仁濬, 洪純愨 3인이 맺었던 甲契의 결성 및 전말을 종합적이면서도 유기적으로 복원하고 선행연구검토에 기초하여 심도 있는 연구를 진행한 최초의 학술논문이다. 본고의 연구 결과를 간략히 전개 양상에 따라 정리해보면, 甲契는李大期가 주동이 되어 1617년 결성되었고 1618, 1619년 2회에 걸쳐 鄭仁濬이 만년에 陝川 栗津里 龜湖가에 축조한 精舍 松亭에서 계회를 가졌는데 1620년 2월李大期가 白翎島로 유배되어 중지되었다. 그러던 중 1622년 가을 鄭仁濬이 그의 아들 鄭濯을 통해 한양에서 지면이 빈 契軸圖 3부를 제작하게 하였고 그중 하나를 鄭濯이 白翎島에 있던李大期에게 보냈다. 이를 받아본李大期는 座目·序文·7言律詩 2首를 지었고 이것을 다시 鄭濯을 통해 鄭仁濬, 洪純愨에게 전달하게 하여 1622년 9월에서 겨울경에 <辛亥生甲會之圖>가 제작되었다. 이후 4백년 가까운 시간이 지나 同甲契에 관한 회화작품으로서 희소한 가치가 인정되어 1990년 보물로 지정되었는데 현재까지 전적으로 연구한 연구물은 없었으며 학위논문에서 소개되는 선에서 그쳤다.

본고에서 선행연구를 검토해본 결과 <辛亥生甲會之圖>의 下段 座目 부분 원문의 명확한 제시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분석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한문 해독 능력의 부족으로 인해 다양한 오류가 발생하였음이 확인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雪壑集』과 『龜潭實記』를 <辛亥生甲會之圖>와 비교/대조하여(校勘) 확정된 원문을 바탕으로 상세한 분석을 하는데 역점을 두었고 한편 기존의 오류는 시정하고 미비점은 보완하며 연구된 자료를 토대로 심도 있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에 앞서 기술된 감계의 총체적 전말 복원, 契軸圖의 제작자·제작 시기, 契軸圖를 제작한 畫師, <辛亥生甲會之圖>의 제작 시기, 계회장소 등을 포함해서 조선시대 同庚契軸圖에서는 확인되지 않는 독특한 구성과 희소성을 논증하여 작품의 미적측면의 우월성, 계회도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위상의 특수함을 밝혔고 또 實景山水圖임을 규명하였으며 16세기 초 安堅派 산수화의 대칭구도와 短線點皴의 구사 확인을 통해 17세기 초까지 安堅派 화풍의 영향이 지속되었음을 논증하였다. 특히 구도와 화풍은 자연묘사가 주가 되고 인물을 작게 표현한 점과 아울러 17세기 작품이면서도 16세기 전반의 전통을 강하게 보지하고 있음을 입증한다.

<辛亥生甲會之圖>는 조선시대 同庚契軸圖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탁월하므로 계회도 방면에서 그만큼 비중이 있고 17세기 초 실경산수 작품으로서 회화양식의 변천을 보여주는 드문 작품이므로 미술사적 중요도 또한 가볍지 않다. 본 연구의 의의는 미술사/회화사, 계회도 연구에 새로운 성과를 더하고 미비했던 문화재 정보의 경신/확장과 가치의 재인식/재확인에 기여하는 발판을 마련한 것이라 하겠다.

Abstract

A Study on Gathering of the Same-Aged Scholars Born in the Year of Sinhae: Reinterpretation with a Particular Focus on Inscriptions on the Bottom of the Scroll

Oh Seung Hwan*

This paper presents the first in-depth academic study of *Gathering of the Same-Aged Scholars Born in the Year of Sinhae* (1622), placing the production of the hanging scroll in context while examining how the senior literati Yi Daegi (1551-1628), Jeong Yinjun (1551-1625), and Hong Sungak (1551-?) organized and maintained the fraternity the painting commemorates. As will be discussed, the three literati of the same age, all born in the *sinhae* year (1551), formed the society at the initiative of Yi in 1617; they held two gatherings—each in 1618 and 1619—at a studio named Songjeong (Pavilion around Pine Trees) that Jeong in his late years constructed on the shore of Gwiho Lake, Yuljin-li, Hapcheon; and the group activity finally came to a halt in the second month of 1620 when Yi was exiled to a far-off island Baekryong-do. Sometime in 1622 while in Hanyang (present-day Seoul), Jeong Yinjun had his son Jeong Tak produce three copies of a scroll, which consists of a picture and a reserved space for inscriptions and send one to Yi Daegi. Around the ninth month of the same year Yi composed and inscribed a list of the participants, a preface, and two regulated poems before sending the scroll back, via Jeong Tak again, to the other members. Thus the completion of

* Sungkyunkwan University

the *Gathering* scroll dates approximately to the winter, but no earlier than the ninth month of the year 1622. About 400 years later, in 1990, the scroll was designated to Treasure No. 1045 of South Korea in recognition of its historical value and rarity; and yet it has since received insufficient scholarly attention beyond brief introductions in graduate theses and dissertations.

This essay points out first that previous studies have incorrectly transcribed, inadequately analyzed, and even misread the primary text inscribed on the bottom of the *Gathering* scroll. Therefore, a strong emphasis is paid on a thorough analysis of the text that this paper has performed by close comparison with the literary sources, *Seolhak jip* and *Gwidam silgi*, while revising exiting mistakes in earlier translation. Several issues will be addressed to contextualize the *Gathering* scroll, including how the fraternity began and ended, where the participants gathered, who were involved in the production of the scroll, and when the painting was made and the scroll was finished. Furthermore, the unprecedented pictorial composition of the scroll leads to argue not only for its aesthetic value but also for a special position in the history of the *gyehoe-do* (painting of literati gathering) genre in the Joseon dynasty. I will argue, in specific, that this painting is in fact a topographical landscape, which became popular in the seventeenth century, while it still employs a body of pictorial features—a symmetrical composition, short and jagged brushwork, and dotted texture strokes—typical of the An Gyeon school that prevailed in the early sixteenth-century landscape. The landscape elements take up a greater proportion of the picture surface, resulting in portraying figures in minute scale, all of which indicate the *Gathering* scroll illustrates the persistence of the early-sixteenth-century-period style into the seventeenth-century painting.

Gathering is of great art historical importance not only to the study of the *gyehoe-do* genre but also to the development of topographical landscapes paintings of the early seventeenth century. Adding to the field new findings of the specific scroll, this essay seeks eventually to renew the appreciation of cultural properties, remind their values, and reaffirm their historical significance.